

도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탐색

송주연* · 임석희**

Theoretical Exploration of Social Sustainability for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Cities

Juyoun Song* · Seokhoi Yim**

요약 :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담론을 고찰하고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그간 한국의 도시성장은 질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고, 그 결과 총량적 부는 달성하였지만 도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 도시 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발전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내발적 주체로서 도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념과 실천적 과제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실천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하면서 그 모순이 누적되어 온 한국 도시의 향후 발전 경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주요어 : 도시의 질적 발전,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필요, 형평성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discuss and develop theories of social sustainability as an alternative of urban development, recognizing that urban development paradigm needs to turn to the qualitative perspective. Urban development in Korea has mainly focused on quantitative expansion disregarding qualitative development so far. Korean cities has achieved the quantitative accumulation of wealth due to the strategy. However, as a result, it is also certain that socio-economic problems such as urban poverty, social polarization, deterioration of welfare and quality of life are getting more serious. In the context that social sustainability meets social needs of urban residents based on equity and focuses on social development, i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relation of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uch as inequality and distribution of urban development. Furthermore, social sustainability can foster urban residents' endogenous capability and governances. The importance of social sustainability has been stood out and its concept and practical problems have been discussed diversely among researchers in the Western advanced countries for the last decade. However, social sustainability is still unattractive and its institutional strategy are insufficient in Korea. Concepts and practical problems of social sustainability have implications on the development path of Korean citie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contradiction due to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for a long time.

Key Words : qualitative urban development, soci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needs, equity

본 연구는 '송주연'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지리 전공) 박사(Ph.D. in Geography, Dept. of Social Studies, Post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jysong6715@gmail.com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shyim@daegu.ac.kr

1. 서론

도시의 발전은 인구 및 경제규모의 증가, 도시의 공간적 확산 등과 같은 양적 측면의 성장과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기능의 내적 충실을 다지는 질적 측면의 발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도시 발전은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친 것이 아닌 양적, 질적 측면의 성장이 동시에 달성될 때 가능하다. 도시 발전의 의미는 경제 성장을 통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고, 총량적 성장을 넘어서 성장의 혜택이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Friedmann and Alonso, 1975; 홍현옥, 1998; 이종철, 2004).

그러나 그간 한국의 도시 발전 방식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먼저 달성되어야 사회 전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의 믿음 하에 분배보다는 양적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해왔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누구나 인정하는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낙수 효과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도시의 질적 발전을 외면한 외발적 성장 방식은 빈곤과 양극화, 복지, 삶의 질 등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남겼다. 현재 OECD 국가 중 최고치에 이르는 한국의 자살률과 하위권에 머물러있는 한국의 행복지수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반영하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성공적인 신화로 회자되면서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양적 성장론자들의 주장이 성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 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분명히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도시 발전에서 양적인 성장과 확장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조명래, 2011). 물론 저성장 기조는 한국뿐만이 아닌 전지구적 차원에서 직면한 구조적 문제이지만, 이의 대응은 도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효율성과 시장성을 내세운 성장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인간을

돌보는 사회적 능력을 뒤로 한 채 국가 간, 도시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채택하고 있다(윤자영, 2012; 박인권, 2015).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질적인 발전에 대한 관심이 지난 도시 발전 방식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촉발되기 시작하였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좋은 도시', '인권 도시', '사회적 도시' 등에 이르는 다양한 논의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마련된 키워드를 내세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건 충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 연대, 거버넌스 등 비가시적인 요소들을 저마다 제시하고 있다(Friedmann, 2000; 모성은, 2007; 정준호, 2011; 송은하, 2012; Kelly, 2012).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론이다. 다른 논의들이 이론적으로 분절화되어 있고, 실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부족한 한계를 지니는 반면,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책 및 실천 전략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지침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최병두 등, 2004). 또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equity)'에 가치를 두고 조건의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정적 차별,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시, 질적으로 발전한 대안적 도시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담고 있는 광범위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국외 학계에서 이론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Oman and Spangenberg, 2002; Dempsey *et al.*, 2011; Åhman, 2013). 또한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우선시 되어 온 동안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Davidson, 2009).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시 발전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사회

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유용성에 천착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배경과 관점, 정의 등을 개관하고 이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에 필요한 원칙과 세부 과제를 고찰한다. 후반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질적 발전에 있어 사회적 지속가능성 연구의 의의를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2.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논의

1)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관점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뿌리는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축인 경제, 환경, 사회 부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흔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제-환경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발전 전략으로 이해하지만,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차원의 논의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TBL(Triple Bottom Line)’적 접근,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요

소로 경제, 환경, 사회 세 가지 영역을 두루 고려하는 균형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있었다(윤순진, 2009). 1997년 John Elkington에 의해 제시된 TBL(Triple Bottom Line) 개념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후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모델이다(Elkington, 1997; McKenzie, 2004). 다시 말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환경보호와 사회발전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발전 전략을 의미한다(이연호, 2010).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으며, 정치적인 이슈에서 경제와 환경 논의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Davidson, 2009; Littig and Grießler, 2005). 이것은 그간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Barclay, 2012),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에 내재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으로 인해 측정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Colantonio, 2010). 결과적으로 ‘win-win’ 전략으로 포장된 세 가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는 사실상 연구자의 필요나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특정 집단들에 의해 편의적으로 변형되어 왔다(McKenzie, 2004; Littig and Grieß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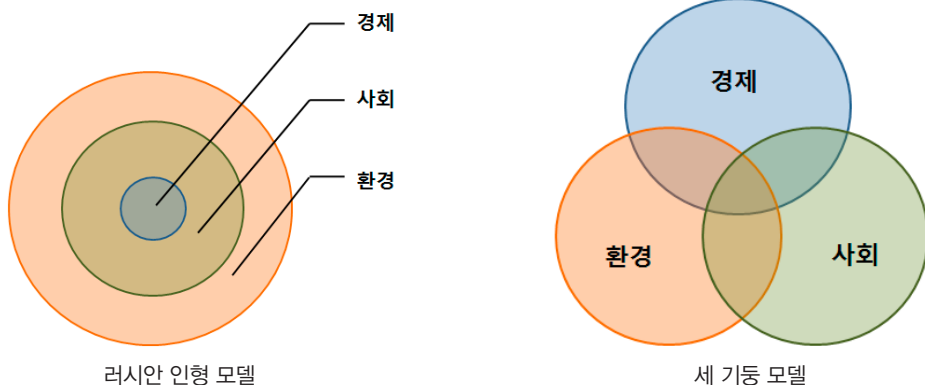


그림 1. 지속가능한 발전의 TBL 모델

자료: Dixon(2011, 4).

2005; 윤순진, 2009). 따라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어떻게 위치 지워지며 이해되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차원 간의 연계를 표현하기 위한 모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표현된다. 첫 번째는 ‘러시안 인형 모델(Russian Doll Model)’로 경제, 환경, 사회 간의 관계를 시스템 내의 시스템, 즉 부분집합의 관계로 표현하며, 환경적인 한계 속에서 경제와 사회 영역이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간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내에서 발달하였고, 필수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환경에 의존해야 하므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내에 위치한다. 한편 모든 경제 환경은 인간 활동에 의해 창출되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경제 시스템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내에 존재한다(Mak and Peacock, 2011).

그러나 이 모델은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즉 환경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환경 보호만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이연호, 2010). 대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기 연구들이 이러한 시각에서 진행되었고, 이때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회적 전제조건(social preconditions)으로 간주되었다(Åhman, 2013; Chui, 2003). 이를 Vallance *et al.* (2011)이 가교형 사회적 지속가능성(bridge social sustainability)으로 분류한 것처럼,²⁾ 이 관점은 사회적 구조와 가치, 규범 등이 환경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계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환경 중심적인 관점은 다차원의 균형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독립적인 목표 설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간 도시 발전에서 간과해왔던 사회적인 문제, 즉 질적인 발전을 위한 접근을 여전히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 ‘세 기둥 모델(Three Pillars Model)’에서는 경제, 환경, 사회의 세 가지 지속가능성 간의 연계성과 균형성의 실천 측면에서 이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역 간 일정부분이 중첩

되는 접경지대는 상호 의존적인 연계성을 나타내며, 세 영역은 동등하면서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지니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이 모델은 경제와 환경적 측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반면, 사회적 측면의 연구는 현저히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깊이있는 연구 또한 진행되지 못했을을 반영하고 있다(Mak and Peacock, 2011; Partridge, 2005). 즉, 세 기둥 모델의 초점은 균형적인 시각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의 연구와 실천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세 기둥 모델을 전제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 연구의 관점은 크게 유지형 사회적 지속가능성(maintenance social sustainability)과 발전형 사회적 지속가능성(development social sustainability)으로 나뉘어 왔다. Chui(2003)에 따르면, 유지형 지속가능성은 인간 생존을 위해 생태적 한계가 존재하듯이 사회적 한계(social limitations)를 인정한다. 예컨대 특정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제약과 규범이 무너질 경우 저항이 발생하고, 사회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와 관습, 구조, 가치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한편 발전형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형평성에 기반한 인간 지향적(people-oriented)인 관점으로 기본적인 욕구의 실현뿐만 아니라 보다 고차적인 삶의 질 향상을 주안점으로 둔다. 이는 세대 간, 세대 내의 형평성에서부터 권력과 자원의 분배, 고용, 교육, 기초 인프라와 서비스 공급, 자유, 사회적 정의, 의사결정에의 참여, 역량 강화 등에 이르기까지 무무형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포함된다(Vallance *et al.*, 2011).

그러나 Vallance *et al.* (2011)의 지적과 같이 전자 즉, 유지형 지속가능성의 관점은 현 특권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특권 외부에 존재하는 이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비특권층과 사회적 약자 문제는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에 걸쳐 나타나는 동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계층을 위해서는 후자인 발전형 지속가능성 개념이 보다 적합하다 하겠다(Åhman, 2013). 게다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은 변화를 통한 질적인 개선, 다시 말해서 발전 위기의 원인을 사회 내부에서 찾아 사회 변화를 동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표 1.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 가지 관점

|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 | 주요 내용 | 초점 |
|-----------------------------------|------------------|-----------------------------|----------------------|
| 러시안 인형 모델 (Russian Doll Model) | 가교형 사회적 지속가능성 | 환경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사회적 전제조건 | 환경적 이익을 위한 수단 |
| 세 기둥 모델 (Three Pillars Model) | 유지형 사회적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한계 유지 | 특권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 |
| | 발전형 사회적 지속가능성 | 형평성에 기반한 삶의 질 향상 | 인간 그 자체에 초점 |

(최병두 등, 2004) 유지보다는 발전형 지속가능성의 접근이 보다 유의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후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은 세 기둥 모델에 기반한 발전형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2)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정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비해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소 모호한 특성을 지닌다. 이는 ‘사회적’이라는 용어에 내재된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특성에 기인하며, ‘무엇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목표인가?’에 대한 논쟁을 이끌어 왔다(Hopwood *et al.*, 2005; Littig and Griessler, 2005; Dempsey *et al.*, 2011). 즉,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의는 연구자들의 관점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일련의 합의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 뿌리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Åhman, 2013).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1987)」를 통해 “미래 세대가 그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며, 현 세대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인 ‘필요(needs)’의 개념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의 고려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WCED, 1987; 사득환, 2008).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대 간의 형평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한 ‘의제 21’을 보면 세대 간의 형평성은 동시대에서는 ‘계층 간의 형평성’을, 전지구적 차원에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내포한 포괄적 의미의 형평성이다(이정진, 1995).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의 실현을 위해 현 세대의 사회적 필요(social needs)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적 발전(social development)을 지속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찍이 Yiftachel and Hedgecock(1993)의 연구에서도 도시는 사회적 필요를 이행하는 공간이며, 도시의 물리적 형태도 이러한 요구를 실행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Ansell and Thompson-Fawcett(2008) 역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은 각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필요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필요에 대한 범위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에 대한 것에서부터 고차적인 광범위한 욕구까지 이른다. 예컨대 의, 식, 주를 비롯한 건강, 쾌적한 환경, 식수,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교육, 여가, 사회적 관계, 자아성취와 같은 훨씬 더 광범위한 욕구로 확장될 수 있다. 전자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 후자는 개인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적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임성을 함양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Littig and Griessler, 2005).

한편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와 더불어 이를 실천하는 방안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과정지향적인(process-oriented) 사회적 지속가능성 정의가 있다. 먼저 McKenzie(2004, 12)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역사회 내

에서 삶을 향상시키는 조건(condition)과 그러한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과정(process)”이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정의가 대개 사회적 필요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조건의 존재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목표로서 논의되었다고 보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Pacione(2009, 607)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환경과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을 사용, 전유하는 데 있어 공평한 접근과 권리의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실천과 정책”으로 정의하였고, 이것은 빈곤의 감소 및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나아가 과정지향적인 접근은 브룬트란트 보고서와 같은 맥락에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동시에 고려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정의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에서 현 세대의 사회적 질(societal qualities)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Partridge, 2005). 대표적으로 Castillo *et al.*(2007)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복리(well-being)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모든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Barron and Gauntlett(2002)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을 지향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정의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WACOSS(Western Australia

Council of Social Services)의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모델을 확립하고, 아래와 같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과정과 시스템, 구조, 관계 등이 활발하게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역량을 지원할 때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는 공평하고, 다양하며, 연계되고, 민주적이며,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Barron and Gauntlett, 2002).

이렇듯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정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절대적이거나 불변의 성격이 아니다. 즉,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동적인 개념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기존 연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의를 종합하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그림 2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환경, 사회적 필요를 다루는 각 지속가능성의 실천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동시에 각 영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틀 속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성하는 영역으로서, 그 속에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익이 향유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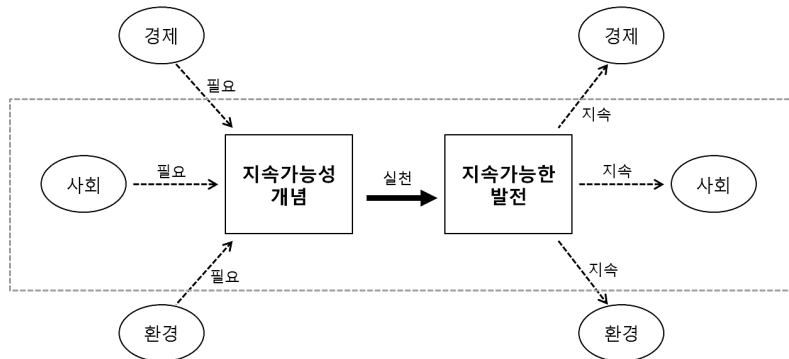


그림 2.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도시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집중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을 위한 원칙

위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토대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정의할 수 있지만,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 자체에 내재된 광범위한 특성은 여전히 이의 실천적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사회적 필요에 포함될 것인가의 문제와 어떻게 이를 충족시키고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주제들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접근들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원칙과 주제는 사회적 필요에 해당하는 범주를 설정하는데 유용하며, 원칙과 주제의 확인은 실천을 위한 접근들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원칙(principles)은 지향해야 할 기준(criteria)과 긍정적인 삶의 조건(conditions)을 의미한다. 예컨대 Bramley *et al.* (2006)이 제시한 사회적 형평성과 커뮤니티의 지속성이란 두 가지 원칙에서 볼 수 있듯이, 원칙은 달성해야 할 지침이라는 점에서 목표(goals)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원칙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초기 연구인 Yiftachel and Hedgecock(1993)의 연구에서 개념적 분석들의 설정을 위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이 연구는 호주 서부의 퍼스 지역을 사례로 시장의 힘에 의해 왜곡되는 도시 위기를 지적하고, 도시 수준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계획이 부재함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도시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도시 커뮤니티, 도시성의 회복³⁾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 다수는

2000년대 이후 비교적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사회적 지속가능성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이슈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합의 없이 연구자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 중 Barron and Gauntlett(2002)의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보다 구체화하고 원칙을 정교하게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WACOSS(Western Australia Council of Social Services)의 주거와 커뮤니티 지속가능성에 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화 작업을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원칙들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원칙을 충족하는 커뮤니티의 특징이 어떠해야 하는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표 2.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원칙

| 범주 | 실천 과제 |
|--------------------------------------|--|
| 형평성(equ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 공평성(fairness) • 평등(equality) • 공평한 접근(fair access) • 권리의 분배(distribution of rights) |
| 다양성(divers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섭(inclusion) • 화합(reconciliation) • 조화(harmony) •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
| 상호연계 (interconnectednes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community) • 상호작용(interaction) •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 삶의 질 (quality of lif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well-being) • 안전성(security) • 안정성(stability) • 생활 조건(living condition) |
| 민주성·거버넌스 (democracy & governa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성(adaptability) •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

자료: Barron and Gauntlett(2002); Chiu(2003); City of Vancouver(2005); Patridge(2005); Bramley *et al.* (2006); CIP(2006); Ancell and Thompson-Fawcett(2008); Chan and Lee(2008); Bramely and Power(2009); Davidson and Wilson(2009); Pacione(2009)의 논의를 토대로 재분류.

원칙은 ① 형평성, ② 다양성, ③ 상호연계성, ④ 삶의 질, ⑤ 민주성과 거버넌스 등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이들 연구 이후에 제시된 원칙들 또한 명명이 다를 뿐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표 2는 Barron and Gauntlett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원칙을 기준으로 기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재분류한 것이다.

첫째, 형평성(equity)의 원칙은 대부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원칙이다. Barron and Gauntlett(2002)은 형평성을 모든 시민들에게, 특히 빈곤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공평한 기회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관계 내에서 가치가 적절하고 마땅하게 분배되는 공정한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개 사회적 정의, 공평성, 분배 등과 동등하게 사용된다.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편익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처럼(Mullaney and Pinfield, 1996), 형평성의 원칙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전체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원칙이다. 기존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 도시발전 전략은 경제적 편익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공평한 분배를 이루지 못했고,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비용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빈곤계층의 경제적, 정치적 기회의 박탈은 빈부 격차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Kristen and Craig,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형평성 원칙은 공정한 분배와 조건의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등적인 배려를 강조한다(김리영, 2010).

둘째, 다양성(diversity)의 원칙은 차이와 다름의 가치를 증진하고 격려한다(Barron and Gauntlett, 2002). 예컨대 주류집단 뿐만 아니라 유소년과 노년층, 여성 등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존중하고,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한 관점과 가치, 신념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양성이 풍부한 사회는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분열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

었던 포섭과 화합, 조화, 사회적 통합 등의 원칙들은 다양성의 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상호연계(interconnectedness)의 원칙은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적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내적, 외적 연결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과정과 체계를 의미한다(Barron and Gauntlett, 2002). 사회적 연결망과 네트워크는 사람들 간 교류와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자연스러운 신뢰를 쌓게 하므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가능하게 만든다. Yiftachel and Hedgecock(1993)의 연구와 밴쿠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정책 보고서(City of Vancouver, 2005)에서도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를 사례로 한 Ancell and Thompson-Fawcett(2008)의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요소들을 건설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며, 커뮤니티 내의 관계망과 근린의 질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서도 궁극적인 욕구(ultimate needs)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넷째, 삶의 질(quality of life) 원칙은 개인적, 조직적, 커뮤니티 수준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Barron and Gauntlett, 2002). 주거와 고용, 소득, 교육, 건강, 안전 등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생활 조건은 최소한의 사회적 필요(social needs)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 조건에 대한 보장은 객관적인 삶의 수준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과 만족감, 예컨대 정체성과 역량,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행복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사회의 복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도시 생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다섯째, 민주성과 거버넌스(democracy & governance) 원칙은 민주적인 절차와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말한다(Barron and Gauntlett, 2002). 거버넌스는 지역의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과 과거와 같이 지방 정부의 행정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 즉 '협치'를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특정 정치 주체가 아닌 사회의 입장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연호, 2010). 따라서 거버넌스

원칙은 시민과 지역사회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속가능성 원칙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관한 것이라면, 주제(themes)는 그 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원칙이 설정되었다면, 주제는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자 이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모니터링되고 개선해야 할 부문이다(Davidson, 2009). 뿐만 아니라 그간 도시 정치적 맥락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행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음을 고려해 볼 때(Berkeley, 2012), 주제는 정책적 기반이 되는 지표 선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주제 역시 최소한의 기본적인 필요에서부터 보다 고차적인 사회적 필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에 Littig and Griefler(2005)은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되어 온 여러 주제들을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기본적인 필요(basic needs) 및 삶의 질(quality of life) 충족과 관련된 지표들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소득과 빈곤, 소득 분배, 고용, 교육, 주거 조건, 건강, 안전 등의 지표와 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와 관련된 지표들이다. 사회적 정의는 사회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에(Nussbaum and Sen, 1993) 더 나은 교육에 대한 기회와 젠더와 이주자들의 형평성 지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사회적 긴밀성(social coherence)과 관련된 지표로 사회적 네트워크, 자발적인 참여, 연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주제는 연구의 흐름에 따라 형평성, 빈곤, 교육 등과 같은 전통적인 주제에서 점차 비가시적이고 다차원적인 새로운 주제들로 대체되거나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정체성, 장소감, 사회적 네트워크 등은 전통적인 주제에 비해 주관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질적인 지표들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계량화하기 어

렵기 때문에 측정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도시민의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Ormerod and Johns, 2007; Layard, 2007). Colantonio *et al.*(2009)은 표 3과 같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연구 경향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경성(hard)’ 주제에서부터 ‘연성(soft)’ 주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주(migration)라는 주제를 예를 들면, 과거 연구들은 단순 통계적으로 수집 가능한 수치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점차 이주자들의 인식과 배경, 선택, 기대감 등 질적인 프로파일링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주제들은 실천적인 접근들을 고안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다. 2005년 밴쿠버시에서 발표한 사회적 발전계획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접근들 중 하나이다. 이 계획은 2002년 밴쿠버 시의회에 의해 요청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원칙과 주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지역의 목적과 이해당사자,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다(City of Vancouver, 2005; Davison, 2009).

그림 3은 밴쿠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접근들을 본 연구에서 논의한 원칙과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형평성, 다양성, 상호연계, 삶의 질, 민주성과 거버넌스 등 5가지 원칙은 각각의 주제들과 결합되어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지표 선정의 기준이 된다. 이때 각 주제들은 단일의 원칙에 적용되는 것이

표 3.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전통 주제와 신(新)주제

| 전통 주제 | 신(新)주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환경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 • 교육과 기술 • 고용 • 형평성 • 인권과 젠더 • 빈곤 • 사회적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적 변화(연령, 이주와 이동성) • 사회적 혼합과 포섭 • 정체성, 장소감, 문화 • 역량, 참여와 접근 • 건강과 안전성 • 사회적 자본 • 복리(well-being), 행복감과 삶의 질 |

자료: Colantodion *et al.*(200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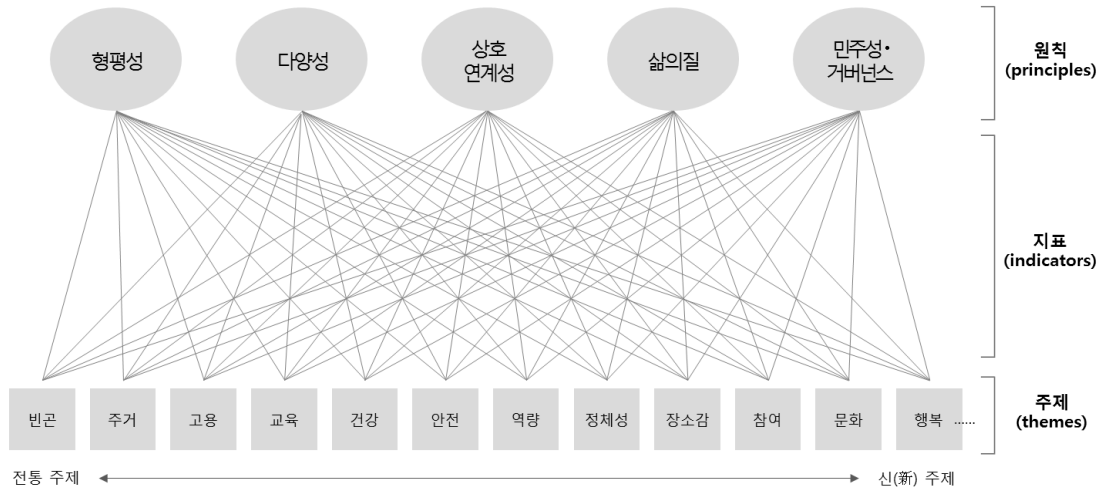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구성

자료: GVRD(2004a; 2004b), City of Vancouver(2005) 참조 제작성.

아니라 모든 원칙들에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여러 가지 차원의 지표로 도출될 수 있다. 예컨대 ‘주거’라는 주제는, 형평성 원칙에서는 주거수준의 격차가 고려될 수 있고, 다양성 원칙에서는 다양한 주거시설의 공급, 상호연계 원칙에서는 이웃과 교류를 위한 주거공간 마련, 거버넌스 원칙에서는 주거지 계획과 관리에서의 주민 참여, 삶의 질 원칙에서는 적정가격의 주거 보급률 등이 고려될 수 있다.

4. 도시의 질적 발전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1) 도시 질적 발전에 대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의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도시 발전 방향은 양적 측면의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도시의 질적인 발전을 이끄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60년대 초 구매력 평가 환율로 계산해서 1,500달러 미

만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에는 약 30,000달러로 20배 이상 증가한 것과 같이 한국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누구나 인정하는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이지순, 2012). 그러나 그 사이 분명한 것은 도시 성장의 질적인 측면과 사회적 형평성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0년 0.286에서 2011년 0.342로 악화되었으며,⁴⁾ 2011년 기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약 8배에 달했다. 열심히 일한 노동시간에 대한 불평등한 결과는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사회공간적 배제의 심화는 도시민의 삶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김용창, 2011).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발전에 대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가치규범을 둔다는 데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조건의 평등(equality of condition)을 지향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정적 차별을 요구한다. 또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조건이나 삶의 기회를 위한 비용과 편익의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Burton, 2003).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또한 경제, 환경,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Mullaney and Pinfield, 1996).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빈곤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며, 모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요청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로 확장된다고 보았다(Langhelle, 2005). 따라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자, 이의 실천을 위한 목표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Sachs(1999), 그리고 Assefa and Frostell(2007)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분리된 독립체로 확립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목표라고 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제를 인간과 재화의 관계, 환경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본다면, 사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amley and Power(2009)가 도시 성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적 포섭,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이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상호작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Colantonio(2008)에 의하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발전된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사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조직하는 방법을 아우르는 독립적 지속가능성이다. 같은 맥락에서 Yiftachel and Hedgcock(1993)의 연구에서도 도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위한 장(場)과 기능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간을 위한 성장 행위들 간의 공통적인 끈이 될 수 있으며, 도시민들의 유대감과 공동의 목적, 그리고 다른 사회적 이익들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Karuppannan and Sivam, 2011).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도시민의 참여 또한 증진시킨다. 대개 지금까지의 도시 발전 방식은 다수의 도시민이 배제된 특정 소수만을 위한 것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람들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 등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⁵⁾ 자발적인 참여는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NGO와 같은 조직적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들 간 자연스러운 협력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 속에서는 그간 도시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성장의 질적인 상태’, 즉 ‘인간을 위한 발전’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는 기존의 도시 성장 척도로 간주되어 온 GDP나 GNP와 같은 단일의 경제 지수로는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도시는 보다 더 경쟁적이 되고 개인화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발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Basu, 2013).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다루고 있는 삶의 질 영역, 예컨대 교육과 기술, 경험, 소비, 소득, 고용 등과 같은 주제들은 도시의 양적 성장을 넘어서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둔다(Omann and Spangenberg, 2002).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배려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을 위해 도시민을 주체로 만드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삶의 질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social needs)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의 충족은 도시민의 보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삶에 대한 만족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삶의 질에 대한 배려는 내발적 발전의 주체인 도시민을 위해 중요하다. 내발적 발전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도시민의 참가와 자치가 가능하도록 지역 내 거주하는 도시민을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과 사회관계에 초점을 두고 거버넌스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내발적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질적인 도시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개념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유용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2) 도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실천 과제

‘어떠한 사회가 지속되길 원하는냐’에 대한 합의 이후에는 ‘어떻게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적인 의제들이 실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최병두, 2012). 도시정부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입안 과정이 부재하다면, 이는 현실과 괴리된 허상에 불과하다. 예컨대 Davidson(2009)의 지적과 같이, 시드니 정부는 이론적으로 경제, 환경, 사회 영역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Sustainable Sydney 2030)」 비전을 발표하 바 있지만, 정작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을 지지하는 정책적 과정이 제외되면서 그 실천성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대조적으로 밴쿠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계획은 구체적인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례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 공급과 같은 계획이 중도우파 정권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기라는 위기 속에서도 추진될 수 있었다(Davidson, 2009). 뿐만 아니라 밴쿠버시는 각기 다른 사회적 이슈들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책임성을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7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RVUO(The Regional Vancouver Urban Observatory)라는 실체적인 기관을 조직하였다. 이 기관은 2004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계획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전문가의 제안과 도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측정, 모니터링한다(Colantion, 2008; Holden, 2012).

그러나 이외 많은 도시들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아젠다는 정치적인 차원을 간과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없고, 또 환경적 지속가능성처럼 가지적으로 도시민들이 직시할 수 있는 사안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

의 동등한 실행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적인 영역에서 실현되지 못하였다(Littig and Grießler, 2005; Manzi *et al.*, 2010). 이에 Pacione(2007, 249)은 지속가능성이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고정적으로 산출 결과를 미리 설정하기 보다는 ‘과정’으로서 접근해야 함을 지적한다. 같은 맥락에서 CIP(The Canadian Institute of Planners) 또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결과가 아니라 정치와 제도에 의해 지지되는 도시 발전의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CIP, 2006, 22)

한편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제도적 장치는 도시 공간과 결부된 공간적, 지리적 실천의 맥락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예컨대 작게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건축물 조성에서부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근린 디자인과 계획, 사회교류의 장(場)으로서 공적 공간의 창출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지리적 표출은 사회적 가치를 지리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그것을 지역에 착근시키는 기제가 된다.

이때 제도적 실천을 위한 지리적 스케일은 근린 수준에서 벗어나 도시, 국가, 글로벌에 이르는 다차원적 스케일로 확장되어야 한다. 사실 기존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도와 노력들은 근린과 커뮤니티 수준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⁶⁾ 이는 ‘사회적’ 수준을 측정하는 질적인 지표들, 예컨대 사회적 관계망이나 지역에 대한 소속감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광역적 스케일에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 또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추상적인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근린 수준에서 자신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이나 보안,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 등에 더 관심을 보인다(Manzi *et al.*, 2010).

그러나 Dempsey *et al.*(2011)은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수의 요인들은 다양한 차원의 스케일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사회적 화합은 국가 스케일에서 보다 적합하고(Penninx *et al.*, 2004), 고용문제는 도시 또는 지구(district)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역의 환경적 질 등은 로컬 스케일에서의 활동이나 장소와 주로 연관된다. 따라서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주제들은 다차원의 스케일을 넘나들면서 유연적으로 적합한 스케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스케일의 문제는 보다 확장된 글로벌 수준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이 야기한 도시 곳곳에 만연해있는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경계를 넘어서는 연대와 책임성이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Massey(2007)는 도시 정치에서 사회적 담론이 부재한 것은 장소 기반의 정치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도시를 넘나드는 글로벌의 힘을 지적하면서 장소 기반의 정치가 글로벌한 관점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 어마한 부를 도시 공간 내에 축적시켰지만, 그 이면에 생산된 도시 내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관점은 글로벌 스케일에서 제기되는 책임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현실의 장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담고 있는 각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동등한 위계가 정치적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하고, 비가시적이고 산술적인 성과를 산출하기 어려운 사회적 지속가능성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지향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도적 장치는 지리적인 실천성과 결부되어야 하며 이때 지리 공간은 다차원적인 스케일

을 고려하는 유연적 접근이 필요하다.

5. 요약 및 결론

양적 성장에 치중해 온 도시 발전 방식에 대한 반성과 그것이 질적인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도시 구성원을 배려하지 않은 외발적 성장은 도시 곳곳에 불평등을 양산하면서 도시 발전이 누구를 위한 발전이며, 총량적 성장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시의 질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개념적 유용성과 실천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은 브룬트란트 보고서 이후 전지구적으로 잘 알려진 지속가능한 발전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그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이론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도시 공간에 정착시키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론적 탐색과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은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와 이의 달성을 통한 ‘사회적 발전을 지속’한다는 두 가지 핵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시

표 4. 사회적 지속가능성 실천 과제 및 내용

| 실천 과제 | 주요 내용 |
|--------------|---|
| 정책적 제도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구체적인 실천과 의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추진 기관 필요 |
| 과정지향적 접근 | 질적 발전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정지향적인 접근 필요 |
| 다차원적 스케일의 지표 | 근린에서부터 국가, 글로벌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스케일을 고려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의 적용 필요 |

민의 사회적 필요는 ‘무엇을’ 사회적으로 지속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범주의 문제이고, 사회적 발전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문제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추상성과 광범위한 특성은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하부구성요소, 즉 원칙과 주제 등을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적 접근들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원칙은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과 목표이며, 주제는 원칙 속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또한 원칙과 주제의 결합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표 선정과 접근들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한 개념으로서 양적 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불평등과 분배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사회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조직하고 도시민의 유대감과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도시는 특정 집단이 아닌 모두를 위한 발전을 지향함으로써 도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거버넌스 구조를 향상시킨다. 동시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기존 단일의 경제 지수로 측정할 수 없는 발전의 질적 부분과 삶의 질을 다루면서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즉, 인간을 위한 발전에 관심을 가진다. 나아가 사회적 필요의 충족은 도시민의 역량강화와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도시민을 내발적 발전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도시 공간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의제들이 실행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함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밴쿠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계획과 제도적 노력은 한국의 도시에 큰 시사점을 준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제도적 기반은 도시 공간과

결부된 즉, 지리적 실천의 맥락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의 지리적 표출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화두를 가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지역에 착근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지리적 스케일은 커뮤니티와 근린 수준에서부터 도시, 국가, 글로벌을 넘나드는 다차원적 스케일의 실천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다루고 있는 이슈들의 광범위성은 보다 적합한 지리적 스케일의 위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 전지구적으로 야기되는 책임과 연대성의 문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도시의 질적 발전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이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으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국내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도시의 질적 발전에 관한 더욱 깊이 있는 이론적 탐구와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의 과제가 남아 있다.

주

- 1) OECD 국가별 행복지수(2011)에서 한국은 36개국 중 24위를 차지하였다. OECD는 주택, 소득, 일자리, 커뮤니티,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등 11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를 개발하고 발표하고 있다(OECD, 2011).
- 2) Vallance *et al.* (2011)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점을 발전형 사회적 지속가능성, 가교형 사회적 지속가능성, 유지형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3) 이들은 교외지역의 공간이 다수 인구의 획일적인 생활양식을 강요하는 반면, 도시 중심 공간은 다양성이 인정되고 사회적인 수용과 도시 고유의 분위기, 문화적 상대성이 존재하는 장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Yiftachel and Hedgecock, 1993, 143).
- 4)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 5) 행복 경제학자인 Helliwell은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접촉에 따라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이 형성됨을 밝혔고, 이는 생활만족도와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님을 밝혔다(Helliwell and Barrington-Leigh, 2010).
- 6) Karuppanan and Sivam(2011), Dixon(2011) Ahmed(2012) Berkeley(2012) Woodcraft *et al.*(2011) 등의 연구 참조.

참고문헌

- 김리영, 2010, “압축도시의 공간구조 특성과 지속가능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창, 2011,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 특징과 성장권의 공유형 도시발전 전략의 구성,” *공간과 사회*, 21(1), 105-150.
- 모성은, 2007,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의 성공요인과 발전방안,” *한국지역경제연구*, 9, 97-118.
-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한국의경험,” *공간과사회*, 25(1), 95-39.
- 사득환, 2008, “도시정부의 환경정체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책*, 16(2), 91-117.
- 송은하, 2012, “도시에 관한 인문학적 접근의 논리와 실제: ‘인문도시’ 평가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순진,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제,”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219-266.
- 윤자영, 2012, “성장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과 지속 가능한 발전,” *여성학논집*, 29(1), 217-246.
- 이연호, 2010, “지속가능발전정책 거버넌스의 평가,” *동서연구*, 22(1), 7-45.
- 이정전, 1995,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 이종철, 2004, “경제 성장-분배-빈곤의 삼중적 인과관계,” *한국동서경제연구*, 16(1), 101-126.
- 이지순, 2012, “모든 이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이지순·서용석(편),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1*, 박영사.
- 정준호, 2011, “21세기, 좋은 도시의 조건,” 조명래·김수현·강현수 외(저),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한울.
- 조명래, 2011, “저성장과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 조명래·김수현·강현수 외(저),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한울.
- 최병두, 2012,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가,” 박삼옥 외(저),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 탐색: 개정2판*, 한울.
- 최병두·홍인옥·강현수·안영진, 2004,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도시화: 개념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39(1), 70-87.
- 홍현욱, 1998, “한국 도시 성장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Åhman, H., 2013, Social sustainability: society at the intersection of development and maintenance, *Local Environment*, 18(10), 1153-1166.
- Ahmed, K. G., 2012, Urban social sustainability: a study of the Emirati local communities in AlAin, *Journal of Urbanism*, 5(1), 41-66.
- Ancell, S. and Thompson-Fawcett, M., 2008, The social sustainability of medium density housing: a conceptual model and Christchurch case study, *Housing Housing Studies*, 23(3), 423-441.
- Assefa, G. and Frostell, B., 2007, Social sustainability and social acceptance in technology assessment: a case study of energy technologies, *Technology in Society*, 29(1), 63-78.
- Barclay, K., 2012, The Social in Assessing for Sustainability: Fisheries in Australia, *Cosmopolitan Civil Societies Journal*, 4(3), 38-54.
- Barron, L. and Gauntlett, E., 2002, Housing and sustainable communities indicators project: stage 1 report—model of social sustainability, *Report of housing for sustainable community: the state of housing in Australia*.
- Basu, R., 2013, In Search of Nimmathi for Social Sustainability? Imagining, Building, and Negotiating Spaces of Peace in Toronto’s Diverse Neighbourhoods,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22(1), 44-66.
- Berkeley, T., 2012, *Creating strong communities: how to measure the social sustainability of new housing developments*, Berkeley group, Berkeley.
- Bramley, G., Dempsey, N., Power, S. and Brown, C., 2006, What is ‘social sustainability’ and how do

- our existing urban forms perform in nurturing it? *Sustainable Communities and Green Futures' Conference, Bartlett School of Planning, University College London, London.*
- Bramley, G. and Power, S., 2009, Urban form and social sustainability: the role of density and housing type,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 Design*, 36(1), 30-48.
- Burton, E., 2003, Housing for an urban renaissance: implications for social equity, *Housing Studies*, 18(4), 537-562.
- Castillo, H., Price, A., Moobela, C. and Mathur, V., 2007, Assessing urban social sustainability: current capabilities and opportunities for future research,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Cultural, Economic and Social Sustainability*, 3(3), 39-48.
- Chan, E. and Lee, G. K., 2008, Critical factors for improving social sustainability of urban renewal projec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5(2), 243-256.
- Chiu, R. L. H., 2003, Soci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ousing development: the experience of Hong Kong, in Forrest, R. and Lee, J.(eds.), *Housing and social change: East-West perspectives*, Routledge, London.
- CIP (Canadian Institute of Planners), 2006, The planning city, in Oberlander, H. P.(ed.). *The world urban forum 2006: Vancouver working group discussion paper*, 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 Vancouver.
- City of Vancouver, 2005, *Policy report: definition of social sustainability*, City of Vancouver, Vancouver.
- Colantonio, A., 2008, Traditional and emerging prospects in social sustainability, *2008/02: EIBURS Working Paper Series*, Oxford Brookes University: Oxford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OISD).
- Colantonio, A., 2010, Urban social sustainability themes and assessment methods, *Proceedings of the ICE-Urban Design and Planning*, 163(2), 79-88.
- Colantonio, A., Dixon, T., Ganser, R., Carpenter, J. and Ngombe, A., 2009, *Measuring Socially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in Europe*, Oxford Brookes University: Oxford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OISD).
- Davidson, K. and Wilson, L., 2009, *A critical assessment of urban social sustainability*, The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Adelaide.
- Davidson, M., 2009, Social sustainability: a potential for politics? *Local Environment*, 14(7), 607-619.
- Dempsey, N., Bramley, G., Power, S. and Brown, C., 2011, The social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defining urban soci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19, 289-300.
- Dixon, T., 2011, *Putting the S-word back into sustainability: can we be more social?* Berkeley group, Surrey.
- Elkington, J., 1997, *Can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Capstone, Oxford.
- Friedmann, J., 2000, The good city: in defense of utopian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4(2), 460-472.
- Friedmann, J. and Alonso, W., 1975, *Regional policy: readings in theory and applications*, The MIT Press, Massachusetts.
- GVRD (Great Vancouver Regional District), 2004a, *The Social Components of Community Sustainability: A Framework*, TAC Social Issues Subcommittee, Vancouver.
- GVRD (Great Vancouver Regional District), 2004b, *The Social Components of Community Sustainability: A Framework User's Guide*, TAC Social Issues Subcommittee, Vancouver.
- Helliwell, J. F. and Barrington-Leigh, C. P., 2010, How much is social capital worth? *NBER working paper No. 1602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olden, M., 2012, Urban policy engagement with social sustainability in Metro Vancouver, *Urban Studies*, 49(3), 527-542.
- Hopwood, B., Mellor, M. and O'Brien, G., 2005, Sustainable Development: mapping different approaches, *Sustainable Development*, 13(1), 38-52.
- Kelly, J.F., 2012, *Social cities*, 26 March 2012, Grattan institute.
- Karuppannan, S. and Sivam, A., 2011, Social sustainability and neighbourhood design: an investigation

- of residents' satisfaction in Delhi, *Local Environment*, 16(9), 849-870.
- Kristen, M. and Craig, S., 2009, Emergent themes of social sustainability, in Dillard, J., Dujon, V. and King, M. C.(eds.), *Understanding the social aspects of sustainability*, Routledge, New York.
- Langhelle, O., 2005,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expanding the Rawlsian framework of global justice, in Redclift, M.(ed.), *Sustainability: critical concept in the social scienc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Layard, R., 2007, Against unhappiness, *Prospect (on line-version)*, 137. See www.prospectmagazine.co.uk for further details (accessed 11/26/2015).
- Littig, B. and Grießler, E., 2005, Social sustainability: a catchword between political pragmatism and social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8(1), 65-79.
- Mak, M. Y. and Peacock, C. J., 2011, Social sustainability: a comparison of case studies in UK, USA and Australia, *17th Pacific Rim Real Estate Society Conference*, Gold Coast.
- Manzi, T., Lucas, K., Lloyd-Jones, T. and Allen, J., 2010, Understanding social sustainability: Key concepts and developments in theory and practice, in Manzi, T., Lucas, K., Lloyd-Jones, T. and Allen, J.(eds.), *Social Sustainability in Urban Areas. Communities, Connectivity and the Urban Fabric*, Earthscan, London and Washington D.C.
- Massey, D., 2007, *World city*, Polity, Cambridge.
- Mayor of Sydney, 2008, *Media Statement: sustainable Sydney 2030: a green revolution*, 28 March.
- McKenzie, S., 2004, Social sustainability: towards some definitions, *Hawke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Magill South Australia: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Hawke research institute.
- Mullaney, A. and Pinfield, G., 1996, No indication of quality or equity, *Town and Country Planning*, 65(5), 132-133.
- Nussbaum, M. and Sen, A., 1993, *The Quality of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OECD, 2011, *Your better life index: country notes*.
- Omann, I. and Spangenberg, J. H., 2002, Assessing Social Sustainability, in *7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cological economics, Tunisia*.
- Ormerod, P. and Johns, H., 2007, Against happiness, *Prospect Magazine*, 133. See www.prospectmagazine.co.uk for further details (accessed 11/26/2015).
- Pacione, M., 2007,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the UK: Rhetoric or Reality?, *Geography*, 92(3), 248-265.
- Pacione, M., 2009, *Urban geography: a global perspective (3rd edition)*, Routledge, Oxford.
- Partridge, E., 2005, Social sustainability: a useful theoretical framework, in *Australas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Dunedin*, 28-30.
- Penninx, R., Kraal, K., Martinello, M. and Vertovec S., 2004, Introduction: European cities and their new residents, in Penninx, R., Kraal, K., Martinello, M. and Vertovec, S.(eds.), *Citizenship in European Cities Immigrants, Local Politics and Integration Policies*. Ashgate, Aldershot.
- Sachs, I., 1999, Social sustainability and whole development, in Becker, E. and Jahn, T.(eds), *Sustainability and the social sciences*, Zed books and UNESCO, New York.
- Vallance, S., Perkins, H. C. and Dixon, J. E., 2011, What is social sustainability? A clarification of concepts, *Geoforum*, 42(3), 342-348.
-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Woodcraft, S., Hackett, T. and Caistor-Arendar, L., 2011, *Design for social sustainability: A framework for creating thriving new communities*, Future Communities.
- Yiftachel, O. and Hedgecock, D., 1993, Urban social sustainability: the planning of an Australian city, *Cities*, 10, 139-157.
- 교신: 임석희,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shyim@daegu.ac.kr)
- Correspondence: Seokhoi Yim,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Daegu University,

송주연 · 임석희

Daeguda-Ro 201, Jillyang, Gyeongsan-city, Gyeongbuk
712-714, Korea (e-mail: shyim@daegu.ac.kr)

최초투고일 2015. 11. 30

수정일 2015. 12. 20

최종접수일 2015. 12. 26